

# 육종연구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 열어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서 31개 국가 490자원 대상

농촌진흥청은 31개 나라에서 수집한 490자원을 대상으로 20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육종가, 식품 산업체, 농업인 등이 참여해 귀리 유전자원을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농업 협질을 평가한다.

최근 귀리 육종목표와 주요 협질 정보를 소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을 귀리 사업단의 귀리 재배, 가공 현황도 공유한다.

미국 농무성에서 도입한 국내 미보유 쌀귀리 유전자원을 포함해 다양한 우수자원이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지난해 미국 농무성에서 국내 미보유 쌀귀리 300여 자원과 조다백, 베타글루칸 등이 풍부한 우수자원을 도입하는 등 쌀



농촌진흥청은 31개 나라에서 수집한 490자원을 대상으로 20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귀리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귀리는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당뇨병, 대장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리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전체 귀리 유전자원은 9,500자원이며, 이 중 쌀귀리는 110여 자원이다.

쌀귀리는 곁귀리보다 겹질이 쉽게 제거돼 가공에 유리하고 향산화 성분이 많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우 센터장은 "이번 평가회로 귀리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최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 '아름다운 하루'를 개최했다.

## 자선바자회 '아름다운 하루'

탄소산업진흥원, 3년 연속 개최 지역사회와 상생 강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최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 '아름다운 하루'를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자선 바자회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증과 참여를 통해 지원순환을 실천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환원하는 등 환경·사회·부문(ESG) 경영의 확신을 목표로 시행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바자회를 통해 기부물품 및 친환경 제품을 판매했으며, 수익금 290여만원은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전달됐다.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의 일상 속에서도 지원순환 등 환경친화적 행동 실천이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며, "향후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중기중앙회, 데이터 활용 강화  
'디지털전환위원회' 출범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예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디지털전환위원회(위원장 한병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나아가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1명, 중앙 대학교 보안대학원장 등 전문가 4명,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미래 본부장 등 지원기관 인사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위촉 이후 한병준 위원회 운영방안과 더불어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전환 촉진모델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방안 △디지털 환경 내 정보 보안 강화대책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병준 디지털전환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인 만큼 최근 대선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전환을 논의하고 있어 지금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사길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비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구를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필요성도 있어 더욱 광범위로 확장됐다.

세 번째, 수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번 수출비우처 3차에 선정된 중소기업도 1차와 2차 선정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종기부 이순배 글로벌상장정책관은 "수출비우처가 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중소기업이 대외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수출비우처 3차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20일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비우처 누리집(export 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글로벌 시장 진출 디딤돌, 수출비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중기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 898억원 규모 2600개사 내외 중소기업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종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비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비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비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전망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비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적극 동참…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최근 순창군 일대에서 열린 전북농협 사업추진 결의대회에서 임직원 6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세계와 경쟁하는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유치 기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우리 전북은 서울 특별시를 제치고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되었고,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 각국의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는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기적까지 전북농협이 열파 성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전북본부 및 150여 지점에 기원 플랜카드를 걸고 전북유치기원 헬리지 동참, 하나로마트 특별 할인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JB희망의 공부방 제199호' 오픈

전북은행, 고창군 꿈끼지역아동센터에 아동 안전 바닥매트 등 설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9일 고창군 흥덕면 소재 꿈끼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고창군에서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지난 2019년 개소한 공립형 꿈끼지역아동센터는 총 2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학원 하나 없는 농촌지역에서 아동 및 보호자에게 든든한 교육기관이자 돌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의 안전이 우려됐던 화장실을 개보수 했으며 오래된 책상과 의자도 교체했다.

아동들에게 집단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간에 바닥매트, 전자등 차양 등을 설치해 아동들의 원활한 학습 및 체험 활동을 도왔다.

오픈식에는 고창군 심덕섭 군수, 꿈

끼지역아동센터 이은미 센터장, 전북은행 전상의 부행장, 이미영 고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상의 부행장은 "단순한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센터에서 그동안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하고 체계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

으로서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